

종교냐 그리스도냐 무엇이 다른가?

Religion Or Christ : What's The Difference?

표지사진 : '내장산' 촬영 김관석 (at.co.kr)

■ 발간사 / 4

■ 서 문 / 6

종교적이 되면 위험하다	7
무엇이 진짜 다른가?	11
그리스도 시대의 종교는 어땠는가?	14
왜 그리스도가 종교에 위협이 되셨는가?	18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22
회심한 종교가의 교훈	46
적용의 위험성	49
왜 언제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가?	51
대조 연구	53
나의 종교 테스트	55
용어 정의	57

발간사

아마도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책자「종교냐, 그리스도냐」가 성경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작은 책자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핵심을 너무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적 기독교를 믿으며 살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의아할 수 있겠으나 그 차이를 이해한다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자를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한번은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여기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인이지만 참된 기독교인이라기보다 기독교적 종교인이다. 우리가

먼저 이 책자를 읽고 우리의 신앙을 똑 바로 깨닫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배포해야 할 중요한 글이다. 이 책자를 내놓게 되어 너무 기쁘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분들께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5년 11월
발행인 김상복 목사
한국 오늘의 양식사

서 문

이것이 굳이 차이를 따질 만한 일인가? 아니면 그저 용어의 문제인가?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5%가 자신을 다소 또는 매우 종교적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사실에 우리가 고무되어야 할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수 종교가들에게 증오를 받으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까?

이 소책자는 그리스도와 종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그리스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연구해보면 이 차이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쓴 것이다.

마틴 R. 디한 2세,
RBC 회장

종교적이 되면 위험하다

The Danger Of Being Religious

종교는 시초부터 위험했다. 일본의 신경가스 사고 음 진 리교가 나오기 오래 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여오고 있었다. 웨이코(Waco)와 존스타운¹⁾(Jonestown) 사건이 일어나기 오래 전부터, 영적 열정은 전쟁터를 만들어냈으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아남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다.

종교적이 되면 위험하다는 사실은 인류 최초의 부모에게서부터 목격된다. 아담과 이브의 치명적 잘못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더 닮고자 하는 시도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 믿기를 중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금지된 방법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었다.

1) 1993년 미국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사교집단 다윗파 신도 80여명이 경찰과 51일 대치 끝에 집단자살하였으며: 1978년 11월에는 남미 가이아나의 고립된 농경사회인 존스타운에서 인민사원 추종자 900여명이 제임스 존스 목사의 명령에 따라 독약이 든 음료를 마시고 집단자살을 하였다.

그들의 첫아들 또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믿으려 노력하였다. 주께서는 가인의 피 없는 제사는 거절하셨지만 동생 아벨이 드린 희생양은 기뻐 받으셨다. 이에 가인은 분노로 불타올라 펄펄 끓는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여 버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렸다.

“우리가 저지르는 최악의 잘못들은 늘 종교적인 잘못들이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다가 문제에 빠졌다. 약속의 땅의 문턱에서, 어떤 유대 남자들이 그 지역 여자들의 이교적 행사에 손님으로 오라는 초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몇 시간 안에 유대인 수천 명이 죽었다(민25).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종교적 잘못들을 저질러 자기의 왕국을 잃어버렸다. 제사장 사무엘이 전투 직전의 제사에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잘못했던 것이다 (삼상13:8-14, 삼상15장).

“위험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을 따라 다닌다.”

심지어 다윗도 종교적으로 되었다가 문제에 빠졌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확정된 후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긴 거룩한 법궤를 들여오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열정적으로 이끌며 그 성물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법궤를 운반하던 황소들이 갑자기 기우뚱하자 웃사라는 제사장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쳐서 죽게 하셨다. 다윗은 이에 공포와 분노로 반응하였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시 읽은 후에야 자기가 옳은 일을 그릇된 방식으로 했었음을 깨달았다(대상13, 15:12-15).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바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는가를 갖고 문제를 삼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식주의나 무식한 방법으로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요 4:23-24).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과 은혜의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이는 복잡한 이야기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사랑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좋은 종교는 무엇인지 야고보서를 보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종교적이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종교)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종교)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1:26-27).

무엇이 진짜 다른가?

What's The Real Difference?

종교와 그리스도는 서로 배타적은 아니지만 매우 다르다. 신약성경의 한 저자요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가 내린 종교의 정의는 이렇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종교)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종교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신 할 수는 없다.

종교란 믿고 행하는 어떤 것이다.

- 종교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
- 자녀를 종교적 학교에 등록시키는 것
- 친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
- 부도덕한 행위를 피하는 것
- 하나님을 믿는 것

- 종교단체에 가입하는 것
- 세례를 받는 것
- 성례를 받는 것
- 교리를 공부하는 것
- 성경을 읽는 것
- 기도를 드리는 것
- 종교적 행사를 축하하는 것
- 종교 과목을 강의하는 것
-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것
- 정견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스도는 알고 신뢰해야 할 어떤 분이다.

- 매우 가까이 계신 분
- 우리를 도와줄 권세를 가지신 분
- 우리를 용서해주실 수 있는 분
-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
-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성별하실 수 있는 분
-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올 수 있는 분
-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는 분

-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분
- 우리를 인도해줄 수 있는 분
- 우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분
-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분
-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 분
-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 우리를 방어해줄 수 있는 분
-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분
- 우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
- 우리의 감정들에 반응할 수 있는 분
- 우리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분
-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
-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분
-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
-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분
-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
-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 우리를 통해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분
- 우리를 고향으로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분
- 우리에게 천국을 확신시켜줄 수 있는 분

그리스도 시대의 종교는 어땠는가?

What Was Religion Like In Christ's Day?

예수님은 종교의 위험성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으셨다. 사회의 죄인들과 폐물들은 예수님께 끌렸지만, 그 당시의 종교가들은 -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 극소수의 예외만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의 철천지원수였다.

* **바리새인들(Pharisees)** - 성경구절들과 많은 구전들을 철저하게 고수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생활의 세밀한 부분까지 적용시킴으로써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의 오염을 제거하려 애썼던 유대인의 종교단체.

* **서기관들(Scribes)** - 바리새인들 가운데 흔히 있던 성경 율법의 전문가들(법률가로도 불림).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 서기관들의 해석을 신뢰하였다.

* **사두개인들(Sadducees)** - 바리새인들의 구전을 거부하고 모세 율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고수를 주장했던 상류 유대인 종교 단체.

* **제사장들(Priests)** - 예루살렘 성전의 의식을 담당하는 책임을 물려받은 아론의 후손들. 그들은 종종 사두개인들과 연합하였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첨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 가지 실수를 방금 범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남겨두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자기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면전에 대고 그들을 위선자요 소경들의 눈먼 지도자라고 부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만한 줄거리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들이 무신론자들, 세속적 사상가들, 사회의 범죄자들 중에서 생길 것이라고 예상할 만 하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거리의 사람들이 그분에게 끌렸다. 그분의 친구들 가운데 죄인들이 있었다. 심지어

로마의 유대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더 배려하였고 의심스러운 점을 선의로 해석하려는 호의를 보였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종교가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언제나 기를 쓰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혀 쓸모가 없으며 이 세상은 예수님이 없다면 더 좋은 곳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들이 모두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다.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영적으로 헌신하는 부류로 존경받았던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 **유신론자들(Theists)**,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주장하였다.

* **분리주의자들(Separatists)**,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세계에 타협되고 먹히고 흡수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다.

* **성경주의자들(Biblicists)**,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실천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 **대중주의자들(Populists)**,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장인들

(匠人)과 상인들(商人)이었으며, 자신들을 평민으로 여겼다.

* **실용주의자들(Pragmatists)**,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만 갖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활의 세세한 부분들에 서까지 어떻게 보여져야하고 적용되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씨름하였다.

* **전통주의자들(Traditionalists)**, 율법을 주의 깊게 암송하였고, 반복하였고, 스스로 영적 조상들의 길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고히 하였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 실천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를 범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다보니 보여주려는 구체적인 적용들 자체가 목적으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얼마 못가서 그들은 율법의 세부 내용들 속에 빠져 허우적거렸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었다(마15:9). 그들은 세부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가 아예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종교에 위협이 되셨는가?

Why Was Christ A Threat To Religion?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위협인물로 보았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미묘한 종교적 정치적 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동요를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다는 명성을 얻으셨다. 예수님은 권세 있게 가르치셨으며, 사람들의 관심사를 종교의 외적 문제에서 마음의 내적 태도로 바꿔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종교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고 다 음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가르치셨다.(마 5:1-9)

- * **심령이 가난한 자들**, 즉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 * **애통하는 자들**, 즉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성품과 결과들을 슬퍼하는 사람들.
- * **온유한 자들**, 즉 기꺼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 * **궁핍히 여기는 자들**, 즉 곤궁에 빠진 사람들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들.
- * **심령이 청결한 자들**, 즉 내면이 깨끗한 사람들.
- * **화평케 하는 자들**, 즉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사람들 서로서로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는 교만한 종교보다는 상한 심령들에게 환영받았다.

예수님은 종교가들에게 위협적 존재가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바리새인들의 종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세부적 복종을 잘 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죄인도 용서하신다고 가르치셨다. 몇 년 후, 전에 바리새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종교적 율법은 그 누구도 죄에서 구원한 적도 없고, 구원하지도 않을 것이며, 구원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바울은 신약의 몇몇 서신들에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종교보다 나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득하였다.

그리스도는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종교보다 우월하다.

- **뒤로** - 그분은 창조주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말씀일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실제로 하나님이시다(요1:1-3).
- **앞으로** - 그분은 오실 우리의 왕이요 심판장으로, 언젠가 세계를 다스리고 각 사람의 마음을 심판하실 것이다(행1:6-11; 롬14:7-12).
- **위로** -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오직 그분만이 손을 내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사랑과 지혜의 주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다(요3:13-16; 빌 2:9-11).
- **아래로** -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공급자요 양육자이시다(골1:16).
- **오른쪽으로** - 우리가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보기 위해 “의”로 향할 때, 그분이 우리의 스승과 모범이 되어주신다. (벧전2:21; 요일2:6).
- **왼쪽으로** - 우리가 “의”에서 돌이켜 그릇된 쪽으로 갈 때,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와 대변자가 되어주신다(요

일2:1-2).

- **안으로** - 그분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평화, 우리의 힘이시다(갈2:20; 골1:27).

이분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알아보지 못한 모든 것을 지니신 그분이다. 그들은 어찌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들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작 메시아가 오시니 그를 죽이려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친히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What Were The Mistakes Of The Pharisees?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면하시며 그들의 종교가 지닌 몇 가지 결함을 지적하셨다. 바리새인들의 오류가 그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살펴보자.

- 그들은 좋게 보이는 것에 만족했다.
- 그들은 사소한 것을 중시하였다.
- 그들은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너무 좋아하였다.
- 그들은 공개보다는 은폐를 일삼았다.
- 그들은 인생의 짐을 더 무겁게 하였다.
- 그들은 자신을 속였다.
-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다.
- 그들은 지옥을 향한 개종자들을 만들었다.

그들은 좋게 보이는 것에 만족했다.

최근에 어느 커다란 화공약품 회사가 자기네가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일련의 이미지변화 광고를 냈다. 그런데 저녁 TV 뉴스에, 그 회사가 스스로 주장하는 만큼 환경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킨 소식을 내보냈다. 한 항의자가 그 회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는 속지 않는다. 네 이미지만 말고 네 행위를 깨끗이 하라.”

그 항의자의 팻말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누가복음 11:39-41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설거지할 때 그릇의 안쪽은 더러운 채로 놔두고 바깥쪽만 열심히 닦는 사람들로 비유하신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식탁에 앉기 전에 늘 행한 그 조

심성 있고 기교적으로 정확한 손 씻기 의식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은 먹기 전에 씻었고, 새 음식이 나올 때 마다 씻었는데, 이는 청결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의식올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의식으로는 깨끗한” 종교가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아셨다. 그들의 이미지는 좋았으나, 그들의 행위는 나쁘다.

“종교는 외면을 바꿔줄 수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종교는 절대로 문제의 본질을 변화시켜주지 않는다. 종교는 그저 표면적 문제들을 다룰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기회를 빌어 유대인의 어느 관원 바리새인에게, 그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내적, 영적 출생)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요3).

기도, 성례, 입교, 세례, 또는 교회 일에 자원하는 것은 좋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형식을 잘 갖춰도 하나님

을 속이지는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3:6).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우리를 위해 절대로 해줄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날 수 있다(요3:16). 즉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마음이 변화된다. 그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원천이 들어오신다. 그것은 스스로 겸손해지는 과정이다. 그것은 우리의 외면을 깨끗이 하려는 노력이 가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공훈에 맡겨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사소한 것을 중시하였다.

나는 ‘사소한 것 찾기’ 게임을 잘 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그들은 사소한 것들에 대한 애정과 기억력이 뛰어나, 생활 속에서 나 같은 사람들은 얻기 어려운 큰 유익을 얻고 있다. 나는 때때로 친구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또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까맣게 잊곤 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강점들이 그런 것처럼, 사소한 것들에 대한 능력도 잘 통제하지 않으면 약점이 될 수 있다. 예수

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종교의 잘못은 사소한 것들을 너무 중시한 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부적인 것들에 빠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위험하다고 설명해주셨다. 누가복음 11:42를 보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사소한 것들은 더 중요한 문제들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논리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논리 정연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학문을 만들었다. 그들은 어떤 문제를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해내는 능력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였다. 예를 들어, 그들은 십일조를 드릴 때에, 늘어난 모든 재산의 몇 퍼센트를 드렸다. 만일 하나님께 수확량의 1/10을 빚졌으면, 율법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채소를 비롯한 모든 것의 10%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다.

바리새인들이 명령 받은 내용보다 자발적으로 더 하려고 한 자세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잘못은 사소한 것

들에 온통 신경 쓰다가 정작 사랑하는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점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온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마22:37-40).

“종교적 세부사항에 집착하면 그것이 효과가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 문제이다.”

바리새인들을 마치 새 차를 뽑기 위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가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자동차 전시장 안에서 그는 자기의 새 자동차에 품격을 더해주기 위해 꼭 필요할 것 같은 몇몇 액세서리들에 주목한다. 한 시간 후에 그는 큰 미소를 머금고 손에는 그가 구입한 커피 잔, 나침반, 지도 받침대, 자동차 회사 로고가 박힌 열쇠고리를 꼭 쥐고 전시장을 떠난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은 원래의 목적보다 더 많은 것을 - 기실 더 적은 것을 갖고 떠난다. 그는 손에 시시한 장신구 몇 개를 든 채, 타고 왔던 고물차를 다시 타고 집으로 향한다.

종교는, 그 자체는 좋고 필요한 것이지만, 관심을 쉽사리 끄는 더 사소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버릴 수 있다. 이 문제를 자각하기 어려운 이유는, 성경공부, 기도, 구제

의 장점들을 얻으려는 과정이 효과가 없을 때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사랑의 마음과 정의를 대신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가르치신 지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사는 미혹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훈을 다시 가르쳤다. 그는 심지어 영적 은사들과, 지식과, 믿음과, 자기희생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해진다면 하찮은 인간적 추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전 13).

그들은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너무 좋아하였다.

종교는 가장 큰 자기중심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명예로운 찬사를 받을 일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보다 우리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더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불경한 사람으로보다는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나아보일 수 있다. 음란물사진사나 창녀보다는 성직자나 목사로 알려지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다. 예수님은, 무언가 달라지지 않는 한, 바리새인들은 경건치 못한 자들이 가는 곳과 똑같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회적 관심과 명예를 얻기 위해 자기들의 영적 명성을 이용해먹고 있는 종교가들을 위해 가장 심한 책망을 남겨두셨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눅11:43).

우리는 모두 남들에게 높이 평가받기를 아주 좋아한다. 우리에게서 칭찬할 만한 무엇이 있음을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 위험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아침과 인정과 관심이 마약처럼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켜, 우리에게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것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마음을 느끼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실제보다 더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맑은 정신에서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종교적 규율을 잘 알고 지키면 사람들의 칭찬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의 종교에 귀의한 후에도 마찬가지다. 과연 우리가 정면관람석을 위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문제로 남는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 비판을 받음으로 인한 괴로움과 자기의 영적 가족 식구들에게 거부된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사는 비판적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던 것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고전4:3-4).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고후10:12).

바울이 사람의 비판을 은혜롭게 받는 법을 배운 것은, 그것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인간적 명예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빌3:1-10).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종교에 의해 인정받는 것과 그리스도에 의해 인정받는 것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공개보다는 은폐를 일삼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인데, 알코올중독자예요.” 이 고백이 미국 익명 알코올중독자협회에서 실시하는 회복 프로그램의 첫 단계이다. 불행스럽게도, 이는 종교가 너무 자주 놓치고 있는 겸손의 요소이기도 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드는 느낌 한 가지는, 참모습이 아닌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느낌이다. 그들은 서로 어깨를 부비고 있지만, 일요일 예배 몸짓을 하기 위해 일요일 옷을 입고 일요일 얼굴을 한 사람들로부터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을 좋아하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내면에서 부르짖고 있다. “잠깐만요, 이건 옳지 않아요. 이건 진짜가 아니예요.”

우리는 모두 문제점들을 갖고 산다. 우리가 스스로 걱정, 분노, 두려움, 시기심, 쓴뿌리, 수치심, 정욕의 문제와 싸우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책임져줄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자신의 문제점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님도 동의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위선자들이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눅11:44).

세계인물연감 제 2집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가 위와 비슷한 인간의 부정직함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프리시아의 프레데릭 대제가 포츠담 감옥을 방문했을 때, 그가 말을 붙인 모든 기결수는 자기가 죄 없이 감옥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절도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간단히 이렇게 말했다. “폐하, 저는 처벌을 받아 아주 마땅한 죄인입니다.” 프레데릭은 감옥 소장을 향해 말했다. “이 못된 놈을 당장 풀어주고 우리 감옥에서 끌어내라. 여기 있는 모든 고상한 죄 없는 사람들까지 타락시키기 전에!”

“종교는 육체의 정욕을 억누를 힘이 없으므로 이를 은폐해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적인 사람들은 마치 이 감옥 속의 죄수들과 같다. 종교적 신념, 종교적 의식, 종교적 제휴가 자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치와 죄를 부인하게 하며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한다. 종교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 선언하라고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숨기고 그것들에 대해 뻔뻔해지라고 부추긴다.

우리의 고질적 문제를 종교 활동으로 덮어보려는 노력은 일종의 자기보호적 반응으로, 인류역사의 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인류의 첫 부모는 죄를 지은 후에 자기들의 무죄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그들은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위하여 나무들 사이로 도망쳤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셨을 때,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다고 고백하였다.

그 이래로 인간은 종교 활동이라는 나무들 뒤에, 인간적 노력이라는 무화과 잎사귀 뒤에 숨어 살아왔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죄 값을 상쇄해줄 만큼의 충분한 종교 생활을 해보려고 애를 쓴다.

그들은 인생의 짐을 더 무겁게 하였다.

이 세상에 벽돌을 주는 사람과 벽돌을 받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산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자. 우리는 각 부류 중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벽돌 재고에 하나가 더해지든지 하나가 감해진다. 예수님은 벽돌을 받는 사람들 중 하나이실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벽돌을 주는 자들일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 율법사(바리새인들이 신뢰했던 성경 율법의 전문가)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종교의 이런 기능을 선명히 드러내주셨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눅11:46).

예수님은 자신의 청중을 아셨다. 이 종교 전문가들은 하

나님의 율법에 수백 가지의 부가적 의무사항들을 갖다 붙여놓았다. 그렇게 해놓고 그들 자신은 빠져나갈 법률적 허점을 찾아내는데 도사였다. 그들은 심지어 안식일에 짐을 운반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빠져나가는 방법들도 갖고 있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바리새인의 전통을 잘 인용하였다. “어떤 물건이라도 나르는 사람은, 그것을 오른 손에 들었든지, 왼 손에 들었든지, 가슴에 품었든지, 어깨에 메었든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물건이든지 손등이나 발이나 입이나 팔꿈치나 머리카락이나 거꾸로 멘 돈 가방이나 돈 가방과 셔츠 사이를 이용해서 나르거나 셔츠의 주름이나 신발 속이나 샌들 속에 넣은 채 나르는 것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일반적인 운반 방식으로 짐을 운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만큼 법을 잘 키기고, 의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없었다.”

종교의 내부자들은 남들에게 부과한 의무사항들에서 자기들만 빠져나갈 방도를 확보한 채 아직도 벽돌주기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매일 가정 예배가 필수적이라고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그렇

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고 한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은혜 아래 있는 기독교인들은, 십일조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합법적 요건인 10% 바치기를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다른 종교 선생들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이혼을 미워하고 금지하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영적 간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내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혼을 허용한 사실도 알고 있다(신24:1-4, 마19:1-9)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는 가운데 율법의 높은 이상들을 일관되게 견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 사이의 건강한 긴장상태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11:28-30).

그들은 자신을 속였다.

이런 농담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모두를 사랑해. 문제는 사람들을 못 참아주겠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웃기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표현을 실연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들에게 비석을 세워준 일에 대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아이러니는 그들이 진짜 선지자를 만났을 때는 그를 죽이고 싶어 했다는데 있다. 바클레이가 말했다. “그들이 숭배한 선지자들은 오직 죽은 선지자들이었다. 살아있는 선지자를 만났을 때는 그를 죽이려 애썼다. 그들은 죽은 선지자들을 무덤과 비석으로 영화롭게 하였지만, 살아있는 선지자들은 핍박과 죽음으로 욕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47-51과 그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바의 요점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

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 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죄의) 양을 채우라!”(마23:29-32).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선지자 살인자나 메시아 살인자로 여기지 않았다. 자기들의 허무한 종교가 실제로 자기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육체는 항상 성령과 전쟁을 벌여왔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육체의 집착을 억제할 힘이 종교에는 없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어, 사람들은 예수님과 맞섰던 그 종교인들처럼,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에 헌신한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과 성경을 영화롭게 하지만, 막상 자녀나 배우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할 때는 갑자기 분을 낸다.

“자기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는데 분을 내는 종교적인 부모는 진정한 자기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

매우 종교적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자신이 태어나고 세례 받고 입교한 그 종교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종종 분개한다. 일평생 교회에 다닌 부모는 자기의 자녀가 “거듭남”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몹시 성을 내기도 한다. “거듭남”이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단어인데도 말이다(요3:1-16). 자기 자녀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는 사실에 분을 내는 종교적인 부모는 진정한 자기점검을 해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는 아들이나 딸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주께서 사랑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맞섰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자기기만 상태에 빠져있다는 상당히 유력한 증거이다.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다.

종교의 가장 큰 위험성 중의 하나는,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위험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이다. 예수님이 당시 매우 종교적인 성경 전문가들에게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눅11:52-54).

여기에서 예수님의 지적은, 자기를 반대한 종교가들이 사람들에게서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열쇠를 염두에 두고 계셨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1)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 및 사소한 것들과 대체해버렸고, (2) 그리스도를 불신임하려 하였으며(요14:6), (3)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데 주목하는 마음”(눅11:33-35에 나오는 “빛의 창”)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거리의 사람”에게서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가버렸다.

지식의 두 열쇠는 성경과 그리스도이지만, 나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올바른데 주목하는 마음”이라는 열쇠를 언급하고 계신 것으로 본다. 올바른데 주목한다는 것은 성경과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의 일부를 살펴보았는데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나온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

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눅11:33-35).

“올바른데 주목하기 전에는 아무도 빛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만일 어떤 사람의 “등불”(눈, 또는 마음의 관심)이 바르게 잡혀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의 “등불”이 가려져 있다면, 그는 어둠(빛, 즉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상태)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몸의 등불과 지식의 열쇠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던 중 한 바리새인의 집에 저녁식사 초대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에서 그 교훈을 마무리 하셨다. 바리새인의 저녁손님이 되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눈(마음의 관심)에 빛을 가리는 장애물을 쳐놓았음을 지적해주셨다. 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바

리새인들이 종교적 형식주의와, 사소한 것들을 중시하기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기와, 이기적 은폐와, 율법주의적 벽돌 주기와, 자기기만에 빠져, 자기들을 위한 빛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까지 가려버렸다는 점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에게서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던 것이다.

그들은 지옥을 향한 개종자들을 만들었다.

신뢰받는 종교 지도자에게서 열쇠 하나를 받았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그 열쇠를 “운명”이라는 패가 붙은 문에 꽂고 열었더니 바로 당신 앞에서 지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끔찍한 충격을 받게 될 개종자들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예수님이 그 종교적 개종자들을 “배나 더 큰 지옥 자식”

이라고 부르셨던 것은, 종종 개종자들이, 자기 신앙을 이미 당연시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기 때문이다. 개종자들은 인생의 중대한 변화를 맞보았으므로, 이제 새로운 열정으로 그것을 변호하고 장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모든 해답을 얻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보다 아는 것이 훨씬 많을 것 같은 지도자들을 신뢰한다.

이런 신뢰는 그 바리새인 개종자를 정말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곤 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소경들의 눈먼 지도자들”(마15:14)이라고 부르신 사실에 비춰볼 때,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이중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새 개종자는 영적으로 여전히 소경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보지 못하는 눈 먼 종교 선생을 무지 속에서 믿고 따르기 때문이다.

종교의 문제점은,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고 볼 때, 희망이 없는 데서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不可知論者)가 개종자보다 더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다고

아예 가정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천국에 가기 위해,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 비록 아직 거기에 도달했다는 확신은 못해도 -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종교의 문제점은,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고 볼 때, 희망이 없는 데서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예상되는 결과는 충격적으로 심각하다. 종교가들, 즉 바리새인들과 그 개종자들은 무시무시한 자각의 길로 치닫고 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확신시켜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5:20).

당신 자신을 잘못 인도받고 있는 종교 개종자라고 생각해 보라. 당신은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아직도 가슴에 하나님 모실 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잘못을 인식하게 된다. 금지된 쾌락을 몇 시간 더 즐기기 위하여, 행동으로나 다른 이들과의 연대로나, 자기들을 영원한 위험에 빠뜨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들이 당신에게 불쌍해 보인다. 당신은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마음에 드는 목사, 신부, 또는 랍비를 발견하였다. 당신은 그를 신뢰하며, 그가 결코 하나님의 원수가 될 리는 없는 선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고 당신 자신에 대해 더 좋게 느끼게 도와주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당신은 좋아한다. 그러나 그가 당신에게 주는 열쇠를 “운명”이라는 문에 일단 꽂으면 이미 너무 늦었다.

회심한 종교가의 교훈

Lessons From A Converted Religionist

그리스도 당시에 약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들은 안식일에 낳은 계란을 먹는 것이 합법적인지 따위의 “미세한 점들”에 대해 장시간의 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다소의 사울(후에 사도 바울로 알려짐)은 그 종교 전통을 물려받았었다. 그는 자신을 바리새인이요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이었다고 표현하였다(행23:6).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그리스도와의 만남(행9)이 있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고 있었다.

회심 후에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

에게 보여주는 일에, 그리고 동료 신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리스도 주님께 직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바울의 준거기준은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미세한 것들에서 근본적인 것들로, 외면적인 것들에서 내면적인 것들로 바뀌었다.”

바울은 성경 적용 관련 논쟁에서 더 이상 서기관들의 법적 지배에 예속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의문시되는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에게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호소하였다. 그는 로마로 보내는 서신에 이렇게 썼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 . . 이렇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14:4,12-13).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킬 만한 율법목록들’과 바꿔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바울처럼 되는 확실한 길이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리스도 이후” 바울의 관점에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종종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바울의 “그리스도 이전” 관점을 받아들이곤 한다. 일단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유일한 문제는 누군가가 그 목록들 중 어느 하나의 모든 부분을 다 지킬 수 있다 해도 그가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금주할 수 있고, 록 음악, 담배, 도박, 영화 보러 가는 일 등을 삼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화를 잘 내고, 비판적이고, 비열한 사람이며서도 교회에 출석하고, 돈을 내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령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육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태도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는 너무나 달리, 지혜와 능력과 죄 사함의 확신을 새롭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에게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종교의 형식들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놓치는 편보다는, 지킬 수 없는 원칙들과 갈등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이끌림 받는 편이 더 낫다.

적용의 위험성

The Dangers Of Application

성경 공부에는 늘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그것이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나?” 같은 질문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앞선 세대들이 계시록, 다니엘서, 소선지서 공부에 집착하면서도,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계급적이게 하고, 경쟁적이 되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요구만 할 줄 알게 하고, 비판적이 되게 하고, 비열하게 하고, 소유욕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문제들은 정작 해결해내지 못했음을 보았다.

“적용 규칙들이 우리의 원칙이 되고, 행위가 마음을 대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종교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버리며, 종교가 우리를 장악하게 된다.”

“이 진리가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물론 이런 부류의 질문들과 씨름하는 것은 유익하다. 그러나

그것 역시 앞선 세대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 이어야 할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던 것과 같다. 그들은 (단지 분노로 불타오를 뿐)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커피에 취할 뿐) 술을 마시지 않으며, (남의 뒤에서 수군댈 뿐) 의 심스러운 오락을 즐기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매우 뛰어났던 부분이다.

적용 규칙들이 우리의 원칙이 되고, 활동이 마음의 태도를 대신할 때, 우리는 아마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꿔치기해버린 종교에 굴복한 것이다.

왜 언제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가?

Why It Makes Sense To Keep Our Focus O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답으로, 종교가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주신다. 예를 들어보자.

-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요15:13; 롬8:35).
-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신다(딤펴전2:5).
- 그분이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인도해주신다(골1:15).
-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사주셨다(엡1:7).
-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주신다(요일2:1).
- 그분이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주신다(롬3:24; 5:1).
-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다(고후 5:19).
-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해주신다(고전 1:30).
-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신다(롬5:1).

-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이 열납하게 만들어주신다(엡 1:6).
-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주신다(엡1:7).
- 그분이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롬8:2).
- 그분이 우리를 양자되기에 합당하게 해주신다(엡1:5).
-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만들어주신다(엡 1:11).
-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주신다(요14:16-17).
-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초점을 주신다(골3:1-2).
-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골1:27).
-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넣어주신다(요 1:12).
-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롬8:34).
- 그분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다(골1:13).
-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골 1:13).
-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롬6:23).
-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다 (요일2:6).

대조 연구

A Study In Contrasts

성경의 많은 문제들에는 양면이 있다. 종교라는 주제에도 그렇다. 우리는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순처럼 보이는 두 사상이 일으키는 긴장과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는 중요하다.

성경에는 (1)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2)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통로를 제공하는 종교적 실천 사례들이 참 많다. 신구약 성경에 공히 종교적 율법, 원칙, 신념, 의식들이 무수히 들어있다. 만일 우리가 종교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을 드러내는 활동이나 행위로 생각한다면, 그 종교는 명백히 이런 것들을 제공할 것이다.

- 교리와 신념의 패턴(딤훈2:1)
- 체험의 공유(행2:37-47; 히10:25).
- 내적 신앙의 외적 표현(요일3:17-18).

종교는 가치가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어떤 외적 활동이라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종교는 가치가 없다. 구원을 받기 전이나 후나, 종교적 지식이나 활동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지식이나 활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

- 구원을 노력으로 따내려는 시도(엡2:8-10).
-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려는 모든 생각(갈3:1-3).
- 그리스도를 대체하려는 모든 것(골2:6-8).

종교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종종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그리스도가 아닌 쪽으로 돌리기에 충분할 만큼, 좋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품으려는 성향이 있다.

나의 종교 테스트

The Test Of Our Religion

당신이 천국에 지원한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의 자격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겠는가?

- 나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 왔다.
- 나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여겨진다.
- 나는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다.
- 나는 세례를 받았다.
- 나는 교회에 다닌다.
- 나는 정말로 악한 일은 하지 않았다.
- 내게는 나를 보증해줄 친구들이 있다.

만약 아직도 당신이 위의 자격요건 중 어느 것을 가지고라도 천국에 지원하려는 생각이 추호라도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종교의 무가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천국이 수용할 유일한 지원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
들을 열거한 것들일 것이다.

- 나는 인정할 만한 나 자신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 나는 내 이름으로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옵니다.
-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 나는 그분이 내 죄를 위해 드리신 희생을 받아들였습니다.
- 나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주실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그리스도를 구별하기 위해 편지한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순전한 종교)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8-10).

용어 정의

Defining Our Terms

그리스도(Christ) -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분으로, 인류의 일원이 되셨고, 죄 없는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성례(Communion) -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떡과 포도주의 상징적 의식.

십자가(Cross) - 처형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친히 거기에 달려 고난 받고 죽으심.

신앙(Faith) - 개인적 신뢰로, 그리스도께 놓일 때 참된 종교의 마음을 만들어준다.

칭의(Justification) -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구원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합법적 지위를 베풀어주신다.

율법주의자(Legalist) -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일을 율법이 해 줄 것으로 신뢰하는 사람

종교(Religion) -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사상과 행위의 한 시스템

종교주의자(Religionist) -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것을 종교가 해 줄 것이라고 종교를 신뢰하는 사람.

회개(Repentance) - 행동의 변화로 입증되는 마음의 변화.

부활(Resurrection) -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육체로 일어나사, 자기가 드린 희생제사가 가치 있음과 그분이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의 삶을 사실 능력이 있음을 만민에게 보여주신 행동.

구원(Salvation)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룩한 선물

죄(Sin) - 하나님의 도덕법을 하나라도 위반하는 것인데,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따른다.

물세례(Water baptism) -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신뢰를 외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적 의식.

① 절망에서 희망으로

(How To Get Up When You're Down)

좌절감, 고통, 슬픔에 잠길 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②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Who Needs Church?)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즐거운 신앙생활 안내

③ 오 신실하신 하나님

(Believe : God Is Faithful)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④ 복있는 사람

(What Does It Take To Be Happy?)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의 설계

⑤ 균형 있는 가정생활

(Does The Bible Contradict Itself About The Family?)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가정생활

⑥ 왜 살아야 하나?

(Why In The World Am I Here?)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하루하루를 뜻있게 사는 길

⑦ 행복한 결혼생활

(What Will Make My Marriage Work?)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⑧ 남자다운 남자

(What Does God Expect Of A Man)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길

⑨ 여자다운 여자

(What Does God Expect Of A Woman)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의 삶

10 걱정없이 살고 싶다

(What Can I Do With My Worry?)

왜 걱정합니까? 걱정없는 삶의 성경적 해답

11 다시 찾은 사랑

(The Way Back)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활력을 회복하는 길

12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How Can I Know What God Wants Me To Do?)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섯 가지 기본원리

13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Time With God)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 하루 하루 성장하는 삶의 지침서

14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What Kind Of Worship Is God Looking For?)

평생드리는 귀중한 예배,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할 예배의 안내

15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How Can A Parent Find Peace Of Mind?)

주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때 얻는 부모의 영적 평안함

16 결혼의 약속

(What Is The Promise Of Marriage?)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복한 결혼의 4가지 단계

17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How Can I Feel Good About Myself?)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는 길

18 균형있는 구원의 신앙

(Studies In Contrast: The Doctrine Of Salvation)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구원의 신앙

19 균형있는 기독교론

(Studies In Contrast: The Doctrine Of Christ)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대답

20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다!

(What I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 나가는 길

21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How Can I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22 교회 지도자의 자격

(Who Qualifies To Be A Church Leader?)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지도자의 대한 성경적 기준

23 갈등 해결의 방법

(Developing The Art Of Gracious Disagreement: Surviving Church Conflict)

갈등해결을 위한 성경적 방법

24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나?

(What Do You Do With A Broken Relationship?)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한 실천적 해답

25 종교냐 그리스도냐 무엇이 다른가?

(Religion Or Christ : What's The Difference?)

그리스도와 종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바로 아는 길

「 』」																									
청원 및 헌금자		청원자 번호				전 화																			
주 소																									
성 명		직 분				접수자																			
주 소						전 화																			
우편번호						H·P																			
구 분		① 신규 ② 주소변경 ③ 부수변경 ④ 재신청 ⑤ 취소 헌금입금은행:()은행		부 수 월			구독기간: 년 월~ 년 월																		
시리즈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신청부수																									

「오늘의 양식」과 「신앙 성장 시리즈」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제작되는 책자입니다.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지기 위하여 오늘의 양식 제작비 권당 500원, 신앙 성장 시리즈 권당 600원을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장 시리즈 25

종교냐 그리스도냐 무엇이 다른가?

Religion Or Christ : What's The Difference?
RBC Ministries

인 쇄 : 2005년 11월 20일

발 행 : 2005년 11월 27일

감 수 : 김상복, 신표근

번 역 : 차동재

편 집 : 최부웅, 신영균

발행인 : 김상복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031)780-9565~8

인쇄처 : 소망사
(02)392-4232